

누가 제일 큰 반화세력인가?

반화(反华)란 중화를 반대하고 중화민족을 반대하고 중국인민을 반대한다는 뜻이다. 반화세력이란 중국을 손해시키고 중화민족을 손해시키고 중국인민을 손해시키는 세력이다. 력사상 러시아는 대량의 중국 국토를 강점했기에 반화세력이라고 하며 일본군국주의는 중국을 침략하여 중국인민을 도살했으니 반화세력이라고 한다. 이러한 외부도적이 있는가 하면 내부도적, 집 도적도 있다. 속담에 “집도적은 막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 실제로 집도적은 식별하기 어렵다. 중공은 바로 집도적이며 서구 맑스주의로 중화의 전통문화를 말살하고 능란하게 자신을 위장하며 중국인민들을 모욕하고 도살할 때 에는 늘 그럴듯한 “혁명”, “인민을 위해 복무하자!”, “인류해방을 위하여” 등등의 구호를 부른다.

력사상 중화민족은 외부도적과 내부도적의 침해를 받았다.

역사자료를 보면 외부 반화세력의 침해 정도와 도살수량은 중공과는 비교가 안된다. 중공집권후 무고한 8000 만 중국인민의 죽음은 고금중외에 없는 비극이며 중공의 “걸작”이다. 중공이야말로 하늘에 사무치는 죄를 범한 제일 큰 반화세력이다. 중공을 비평하거나 반대하기만 하면 모두 무조건 “반화세력”이라 하며 모욕하고 탄압한다. 기실은 중공이 부르짖는 “반화세력”은 “반공세력”을 가르킨다. 외부의 반공세력은 중공에게는 불리하지만 중국인민에게는 유익하며 실제 “친화세력”인것이다. 내부의 “반공세력”은 중공의 독재를 반대하고 민중의 권익을 수호하기에 실제로 애국세력인 것이다.

광대한 중국공산당과 민중들이여! 중공의 멸망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루속히 중공조직에서 탈퇴하여 아름다운 미래 를 맞이하자!

대만에서 3200 만 용사들이 중공에서 퇴출함을 성원

2008 년 2 월 16 일, 대만 동부민중들이 대동체육장에서 집회를 열고 3200 만 용사들이 중공에서 퇴출함을 성원했다.



대만 립법위원회 위원 황건정 (黃健庭)이 집회에서 발언.

공산정권은 곧 멸망 될것이다

지난 1 월 25 일 대만매체에서 특별취재할때 전임 한국 대통령 김영삼(金泳三)은 <공산정권은 곧 멸망될 것이다. 공산국가는 전세계의 절반을 차지하던데로부터 지금에 와서는 중국, 쿠바, 북한, 베트남등 4 개 나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라지 않아 이 4 개 공산정권도 곧 붕괴될 것이다.>고 했다.



전세계중국고전무용 1 등상을 탄 임봉우



2007 년 7 월 8 일, “제 1 차전세계중국고전무용콩쿨”에서 파룬궁수련자 임봉우(任凤舞)는 녀자청년조 1 등상을 탔다. (윗 사진)

일본 도쿄에서 환영을 받은 신문예술단공연



중화신문문화를 펼쳐보인 신문예술단은

뉴욕에서 15 차례의 신당인 중화인 신년만회를 끝마치고 지난 2 월 12 일에 아시아주 순회 공연의 첫정거장인 일본 도쿄로 왔다. 극장이 떠날갈듯한 열렬한 박수소리는 일본관중의 신년만회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존경을 표현했다. 일본신화사보 주필 소령(苏灵)선생은 공연을 보고나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매우 감동되었습니다. 나는 워낙 쉽게 감동되지 않는데 금방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라고 말했다.



전국 박해 소식

▶ 흑룡강성 쌍압산시 파룬궁 수련생 오월경(吳月庆)은 2001년 12월 사악한 중공악인들에게 랍치되어 불법으로 12년 판결을 받고 흑룡강성 목단강 감옥에서 심한 박해를 받았다. 이후 심한 폐결핵에 걸려 체중이 35kg 정도로 감소했다. 오월경은 2007년 12월 20일 박해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 흑룡강성 학강시 흥안태촌 파룬궁 수련생 리춘염(李春艳)은 2007년 9월 가목사시 로교소 8대대로 끌려가 악경들에게 박해를 받았다. 10월 8일 악경들이 리춘염의 두 손을 침대에 묶어놓고 쪽걸상에 20여일 동안 앉혀놓아, 량측 둔부에 궤양이 생기고 시야가 흐려지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었다. 지금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생명이 위태롭다.

▶ 중경 대법제자 조가방(趙家芳)은 2001년 8월 기강현 공안국 1과, 송광파출소 경찰과 연방대에 의해 집에서 랍치당해

강제로 8년 6개월 형을 받고 영천로동개조 농장에서 박해를 받고 있다. 조가방은 박해로 두 눈을 실명했고 악인들의 사주를 받은 병원에서 정체 불명의 약물을 주사해 심각한 호흡곤란 상태가 나타났다. 2007년 12월 21일 그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 한단시 파룬궁수련생 양보춘(楊宝春)은 1999년 7월에 한단시로교소에 갇혀 1년반 동안 박해를 받다가 2001년 1월 초에 악경들에게 오른쪽 다리를 잘리우고 한단시영강정신병원에 호송되어 지금까지 박해를 받고 있다.

▶ 흑룡강성 쌍성시 금성향 연화촌 파룬궁수련생 이복전(伊福全)은 2001년 8월 19일, 악경들에게 랍치되어 비법적으로 6년 판결을 받고 태래감옥에 갇혀 박해를 받았다. 2005년 9월에 그의 왼손 근육이 수축되었고 점차 신체가 악화되어 장기적으로 침대에 누워있었다. 2008년 2월 13일에 그는 원한을 품은채 세상을 떠났다.



연변 박해 소식

2008년 1월 20일, 도문 시공안국 월궁파출소 악경 리금우와 몇몇 경찰들이 곡수촌에 와서, 시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러 온 도문시 파룬궁학원 장숙현(張淑賢)을 랍치하려고

했으나 촌민들의 질책을 받고 풀이 죽어 되돌아갔다. 이틀후 출관(出殯)하는날, 악경들은 또 다시 곡수촌에 와서 장숙현을 랍치하려고 했다. 장숙현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위험에서 벗어났다.



파룬궁에 대한 중공의 탄압정책

중공의 탄압정책은 “명예상에서 더럽히고 경제상에서 무너뜨리

며 육체상에서 소멸한다.”고 제정하고 “610 사무실”을 전국에 만들어 탄압을 감독하고 있다. 구체적인 탄압방법으로는 체포, 세뇌, 학살이며 심지어 감옥에 갇힌 수련생의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하고 있다. 박해방침은: 독해야 하며 죽도록 때리고 때려서 죽으면 그만이며 때려 죽이면 자살로 취급하며 신원을 조사하지 않고 직접 화장한다.



(런재 3)

중공의 멸망은 하늘의 뜻



7. 2006년초에 적발된, 중공의 로교소, 감옥에서 파룬궁학원의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하여 폭리를 얻은 죄행은 전세계를 놀라게 했다.



8. 중공은 파룬궁을 탄압하기 위해 “천안문분신자살사건”을 조작하여 중앙텔레비존에 방송하여 백성들이 파룬궁에 대한 공포와 증오를 자아내게 했다. 하지만 민중들은 점차 이것은 중공이 꾸며 낸 사기극이라는 진상을 알게 되었다.



9. 근년에 독미(毒米), 독유(毒油), 독차(毒茶), 독주(毒酒) 사건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중공이 신앙을 말살하고 전통도덕을 훼손시킨 결과이다.